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및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박옥임 · 신호식* · 김은주**

순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A Study on the Solidarity between Aged Parent & Their Adult Children,
and Self-Esteem of Aged Parents

Park, Ok-Im · Shin, Hyo-Shick* · Kim, Eun-Joo**

Dept. of Home Management,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self-esteem of the aged parents.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solidarity between aged parents and adults children, self-esteem of aged parents.

Subjects were 234 male and 235 female parents who were aged over 60.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solidarity between the aged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s average 65.5(Conversion value by 100 : 51.9) and shows the average level. The relations between solidarity and background variables are variables affected by education, pocket money, health, social activity and religion.

2) The degree of self-esteem in the aged parents is presented to average 26.1(Conversion value by 100 : 56.5) and shows the average level and it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education, pocket money, family living together, health, social activity, religion and the number of children.

3)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elf-este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solidarity, the sub-areas of solidarity are subdivided into five groups. higher solidarity the group has, higher self-esteem it has.

4) The degree of effects of the variables which affect self-esteem in the aged parents is in such order as affectional solidarity($\beta=0.32$), helping($\beta=0.14$), education($\beta=0.10$), solidarity by contact($\beta=0.09$) and solidarity by argument($\beta=0.09$) and R^2 of such variables are 30%.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족은 혈연집단으로서 가족구성원들 상호 간

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내의 어떠한 가족관계보다도 핵심적인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이 가족의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지닌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20-3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로 가족구조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가족규모 또한 축소되면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도 이러한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당연히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었던 노후에 대한 의존이 서로에게 소외감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변화순,1993).

더구나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질적 향상, 주거공간의 편리성 등에 힘입어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구성 중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체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사회관습 속에서 일생을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60세 이상의 노부모 세대들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성인자녀 세대들에게 과거와 같은 가정생활이나 가족부양을 기대하기는 점차 어려워졌으며(윤진,1981), 자녀세대들 역시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의무를 그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현대생활에 알맞는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새로운 부양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형태, 경제적인 의존과 부조,거주의 근접과 같은 “外顯的”인 관계만을 강조하여 왔다(Brody et al.,1984 ; Anderson,1984). 그러나 노인세대는 자녀와의 동거나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 또는 교환관계보다는 감정적,심리적인 차원의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장인협,최성재,1987 ; Bengtson,1975)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간의 질적유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유대의 양보다는 유대의 질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박경란,1988 ; 박성연,최혜경,1985 ; 이신숙,1994).

그러므로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측면은 노인 개개인의 생활만족에 관련된 ‘삶의 질적인 문제’이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유대는 노부모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년기에 경험하는 많은 상실과 적응력의 감퇴 그리고 가족내의 역할변화 등은 노부모에게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며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며 자기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노후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의 실태를 파악한 경험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노부모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부모의 관점에서 노부모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와 이에 따른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차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와 노부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와 이에 따른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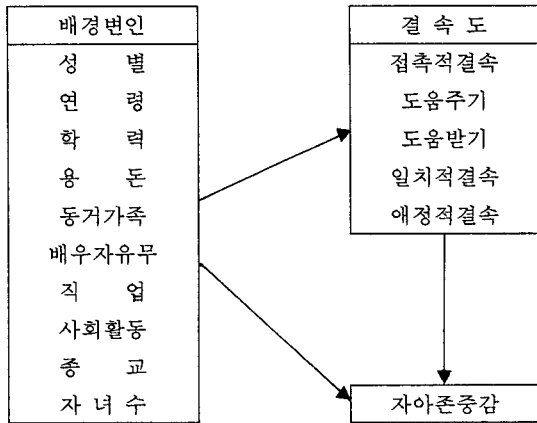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결속도의 하위영역에 따라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이러한 연구문제에 기초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결속도라는 개념은 뒤르켁(Durkheim)의 사회이론에서 유래되어 역사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조직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결속도라는 개념은 비슷한 가치관, 상호의존성, 상호부조, 응집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가족연구에 한정지어 응집(cohesion), 통합(integration)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Festinger와 그의 동료들(1950)은 결속력을 “한 집단 구성원들의 유대감으로, 활동하게 하는 모든 힘”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Olson(1983)은 가족결속력을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로 정의하고 이 개념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가족학 연구중에는 세대간의 결속력을 Bengtson과 그의 동료들(1982)이 미국의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발달시킨 가족결속력의 틀을 사용하여 유용성을 증명한바(조병은,1990), 세대간의 결속력을 가족결속력의 의미에 비추어 “가족구성원들 간의 특별한 유대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정서적인 상호의존성, 상호부조, 가치목표에 대한 유사성 등과 같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Bengtso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가족결속도의 틀이 우리나라의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묘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들 세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 Bengtso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는 ① 구조적 결속 ② 접촉적 결속 ③ 애정적 결속 ④ 가치관 일치의 결속 ⑤ 기능적 결속 ⑥ 규범적 결속 이다.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의 하위차원은 크게 양적관계와 질적관계로 구분된다. 상호작용의 양적 측면은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접촉의 빈도 및 접촉의 양식으로 객관적 결속을 의미한다. George(1989)와 Krause(1987)는 연구에서 의례적인 가족모임, 일상적인 만남, 전화, 편지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 경제적·신체적인 도움 주고받기 등이 포함되는 세대 간의 객관적 상호작용은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Connidis와 Davis(1990)는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인자녀와 떨어져 거주하는 노인보다 성인자녀와 가까이 거주하는 노인이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노부모-성인자녀관계에 있어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연구로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과 인생만족도를 밝힌 조병은(1990)은 우리의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는 강하게 결속되어 있고 성인자녀는 부모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며, 노부모와 자녀 간의 빈번한 접촉과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 받기가 친밀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세대간의 유대관계란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정적인 유대감에 의하며, 이러한 애정적 결속이 노인의 인생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런데 노부모-성인자녀 간 원조의 호혜성이 노부모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McCulloch(1990)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세대간 교환된 도움의 양은 노부모의 복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노부모-성인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적인 측면이 노부모의 복지에 미치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질적인 상호작용이란 친밀한 정서적 감정을 갖는 것으로 주관적인 결속을 의미하는데 Bengtson과 Cutler(1976)에 의하면 세대간 혹은 가족유대의 정서적 요소이며, 가족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Blieszner와 Mancini(1987)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인은 자녀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 없으면서도 자녀에 대해서 영속적인 유대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물질적인 면에서의 도움을 받는 상호관계를 떠나서 애정적인 면에 의하여 유대관계를 지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Shanas(1973)도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박경란, 1988에서 재인용) 노부모의 복지는 성인자녀의 물질적인 상호작용보다도 정서적인 지지나 도움 즉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부모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상징적 상호주의자인 Mead(1970)는 인간이 사회 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자신도 역시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게 되고 만일 자신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환경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노인이 가족관계에서 얻는 대인관계의 경험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Korman(1967)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에 대한 인지구조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평가

하는 것이라고 하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고저는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인지 내용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Aronson과 Metter(1968)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행위를 수행하도록 동기화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부정적 행위를 수행하게끔 동기화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며, 대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치로운 한 개인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인생주기 가운데 중년기와 노년기를 통해 나타나는 많은 상실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들이 그들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데 필수적임에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노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적 생활사건들에 의해 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킴으로써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Schwartz와 그의 동료들(1984)은 노인으로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상을 지녀야 한다고 하여 자존심의 고양이가 노후적응의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여러 연구(Neuhaus & Neuhaus, 1982; Taft, 1985)들은 노인의 건강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노인은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김옥수(1987), Chown(1977)는 수용시설 입소자와 단독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수용시설의 거주자는 불행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자존심 실태를 파악한 송대현과 박한기(1992)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질병이 없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함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존심이 높다고 하였다.

3.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대현과 박한기(1992)는 연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인 노인들의 자존심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높다고 하였다. 즉 자존심은 정서적 지원과 심리적 보상을 마련해 주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개인에게서 발달해 가는데 이러한 노인들의 자존심을 고양하는 것은 곧 노인들이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rause(1987b)도 노인들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지면 사회적 지원을 적극 찾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Krause는 자아존중감이 강한 노인이 자아존중감이 약한 노인보다 사회적 지원을 더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사회적 지원 가운데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Thoits와 그의 동료(1985) 역시 자신의 가치, 중요성, 능력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타인들에 의한 평가를 지각할 때 형성된다고 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으로부터의 존중, 신뢰, 애정을 느낄 때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유지됨을 의미하였다. 결국 노인기에 경험하는 여러가지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지원,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인 자녀와의 결속력을 통해 완화되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척도는 Bengtson과 Schrader(1982)의 가족결속도 개념들에 기초한 조병은(1990), 최정혜(1992), Mengen과 그의 동료(1988)에 의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에 적용시킨 선행 연구(신효식, 1993; 최정혜, 1992)에서 구조적결속과 규범적결속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애정적결속, 일치적결속, 접촉적결속의 3개의 하위영역과 도움주기와 도움받기의 상반된 내용으로 구성된 기능적결속을 따로 구분하여 총 5개 영역, 24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 이었다.

노부모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예비조사의 결과 상관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이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표집

이 연구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기혼자녀를 가진 K직할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3년 5월 10일부터 20일에 걸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분석한 후 문항을 수정하여 1993년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40부를 배부하였는데 그 중 482부가 회수되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을 제외한 469부를 이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One-Way Anova, Duncan-Test, Pearson's 적률상관,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노인이 234명(49.9%), 여자노인이 235명(50.1%)으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연령은 60세에서 90세까지로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60-69세가 222명(47.3%), 노년 중기에 해당하는 70-79세가 170명(36.3%), 노년 후기에 해당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77명(16.4%)으로 노년초기에 해당되는 노인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33.0%, 국졸이 39.2%, 중졸이 12.6%, 고졸이 9.4%, 대졸이상이 5.8%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노인들의 한달 평균 용돈은 4-6만원이 3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2%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을 보면 7.7%가 홀로 살고 있었고, 18.7%가 노부부만 살며, 39.8%는 장남부부와 함께, 9.9%는 장남의 아들부부와, 5.6%는 딸부부와, 14.0%는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55.3%로 나타나 K직할시의 노부모는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들의 결혼상태를 보면 49.5%가 홀로 되었고 51.5%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 노인 스스로가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22.8%가 건강이 나빴고, 35.5%는 그저 그렇다, 32.2%는 건강이 좋다, 10.5%가 건강이 아주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체 노인의 58.3%가 자신의 건강을 좋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사회활동 수준은 노인정이나 교회, 절, 노인 모임 등의 참여도를 보는 것으로 전체 노인의 10.4%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21.7%는 한달에 1-2번, 14.9%는 한달에 3-4번, 14.2%는 한달에 5-10번, 38.8%는 한달에 10번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21.9%가 불교, 21.1%가 기독교, 13.8%가 천주교, 40.8%가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전체 노인의 59.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수에 있어서는 1-2명의 자녀를 둔 노인의 비율은 11.2%, 3-4명의 자녀를 둔 노인의 비율은 33.2%, 그리고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노인의 비율은 55.6%로 전체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많은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범 주	N	%
성 별	남	234	49.9
	여	235	50.1
연 령	60-69세	222	47.3
	70-79세	170	36.3
	80세 이상	77	16.4
교 육 수 준	무 학	155	33.0
	국 졸	184	39.2
	중 졸	59	12.6
	고 졸	44	9.4
	대졸이상	27	5.8
용 돈	1- 3만원	127	27.2
	4- 6만원	158	33.7
	7-10만원	42	8.9
	10만원 이상	142	30.2
	동 거 가 족	혼 자	36
노부부만		88	18.9
장남부부		185	39.8
장남의 아들부부		46	9.9
딸 부부		26	5.6
미혼자녀		65	14.0
	친척혹은다른사람	23	4.9
건 강	나쁘다	106	22.8
	그저 그렇다	165	35.5
	좋다	149	30.2
	아주좋다	49	10.5
사 회 활 동	없 다	49	10.4
	한달1- 2번	102	21.7
	한달3- 4번	70	14.9
	한달5-10번	66	14.2
	한달 10번이상	182	38.8
종 교	불 교	103	21.9
	기독교	99	21.1
	천주교	65	13.8
	없 다	191	40.8
	기 타	11	2.4
배우자	유	239	51.5
유 무	무	230	49.5
총 자녀수	1-2명	52	11.2
	3-4명	156	33.2
	5명이상	261	55.6

2. 연구문제의 검증

1. 연구문제 1의 검증 :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의 일반적 경향 및 배경변인과의 관계.

<표 2>와 같이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평균 65.5점(중앙치 : 6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65.1점, 여자노인은 평균 65.8점으로 남녀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여자노인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와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용돈(P<.001), 건강(P<.001), 사회활동

(P<.001), 종교(P<.001), 노부모의 교육수준(P<.05)에 의하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사회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교육수준이 높을 때 노부모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용돈이 많을수록 성인자녀와 결속력이 높았다는 것은 성인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과 도움이 노부모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연령과 동거유무 변인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각 집단에 따른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의 점수를 살펴볼 때 이 연구 결과는 노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인자녀와 동거할 때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가 높았다는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자아존중감

		남자 노인				여자 노인				전 체			
		N	%	M	SD	N	%	M	SD	N	%	M	SD
결속도	상	28	11.9			41	17.5			69	14.7		
	중	171	73.1	65.1	9.4	152	64.7	65.8	10.2	323	68.9	65.5	9.8
	하	35	15.0			42	17.8			77	16.4		
자아 존중감	상	38	16.2			31	13.2			69	14.7		
	중	163	69.7	26.2	5.2	163	69.4	26.0	5.5	326	69.5	26.1	5.4
	하	33	14.1			41	17.1			74	15.8		

*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의 총점 : 120점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총점 : 40점

* 하 : M-SD <중 <M+SD : 상

2. 연구문제 2의 검증 :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및 배경변인과의 관계.

<표 2>와 같이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6.1점(중앙치 : 2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26.2점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26.0점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자아존중감과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건강(P<.001), 사회활동(P<.001), 용돈(P<.001), 동거가족(P<.001), 총자녀수(P<.05), 교육수준(P<.05), 종교(P<.05)에 의하여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이 좋을수록,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미혼자녀와 동거할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들의 연령을 3단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노년초기(60-69세)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밝힌 송대현과 박한기(1992), 김옥수(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건강은 노부모의 자아존중

감에 매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이란 곧 자신의 활동성과 관계되므로 그로인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변인으로 건강을 지적인 연구들(大和,1990 ; Taft,1985 ; Ward,1977)과 일치한다. 그리고 노부모의 동거가족 유형 역시 노부모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데 딸부부와 동

거할 때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미혼자녀와 동거할 때 가장 높았다. 특히 혼자사는 경우보다 오히려 딸부부와 동거할 때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딸은 결혼하면 출가의인이라는 사회 통념상 딸과 동거한다는 것이 노인 스스로 위축감을 느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변 인	구 분	빈 도	평 균	F 값	Duncan
연 령	60-69세	222	65.5	0.33	A
	70-79세	170	65.1		A
	80세 이상	77	66.2		A
교육수준	무 학	155	65.9	2.78*	ABC
	국 졸	184	64.6		BC
	중 졸	59	63.4		C
	고 졸	44	67.5		AB
	대졸 이상	27	69.5		A
용 돈	1- 3만원	127	61.1	14.90***	C
	4- 6만원	158	65.6		B
	7-10만원	42	67.0		AB
	10만원 이상	142	68.6		A
동거가족	혼 자	36	62.7	1.26	A
	노부부만	88	65.1		A
	장남부부	185	66.2		A
	장남의 아들부부	46	67.2		A
	딸 부부	26	62.6		A
	미혼자녀	65	65.2		A
	친척혹은 다른사람	23	65.4		A
배우자유무	유	239	65.8	0.72	A
	무	230	65.0		A
건 강	나쁘다	106	62.7	9.22***	C
	그저그렇다	165	64.3		BC
	좋다	149	67.0		B
	아주좋다	49	70.3		A
사회활동	없다	49	59.6	8.98***	C
	한달1- 2번	102	63.0		B
	한달3- 4번	70	66.4		A
	한달5- 10번	66	66.3		A
	한달 10번이상	182	67.6		A
종 교	불 교	103	66.4	6.35***	AB
	기 독 교	99	66.5		AB
	천 주 교	65	68.8		A
	없다	191	63.0		B
	기 타	11	69.6		A
총 자녀수	1-2명	52	63.9	1.45	A
	3-4명	156	64.9		A
	5명 이상	261	66.1		A

* P<.05 *** P<.001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및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의 자아존중감

변 인	구 분	빈 도	평 균	F 값	Duncan
연 령	60-69세	222	26.4	1.08	A
	70-79세	170	25.6		A
	80세 이상	77	26.0		A
교육수준	무 학	155	25.3	3.80**	C
	국 출	184	25.9		BC
	중 출	59	26.3		BC
	고 출	44	27.5		AB
	대졸 이상	27	29.1		A
용 돈	1- 3만원	127	24.4	7.62***	B
	4- 6만원	158	26.0		A
	7-10만원	42	27.0		A
	10만원 이상	142	27.4		A
동거가족	혼 자	36	24.6	5.06***	B
	노부부만	88	26.0		AB
	장남부부	185	26.4		AB
	장남의 아들부부	46	25.8		AB
	딸 부부	26	21.5		C
	미혼자녀	65	27.7		A
	친척 혹은 다른사람	23	26.6		AB
배우자유유	유	239	26.5	3.90	A
	무	230	25.6		A
건 강	나쁘다	106	24.8	10.99***	B
	그저그렇다	165	24.9		B
	좋다	149	27.6		A
	아주좋다	49	27.9		A
사회활동	없다	49	22.3	8.12***	B
	한달1- 2번	102	25.7		A
	한달3- 4번	70	26.5		A
	한달5-10번	66	26.7		A
	한달 10번이상	182	27.5		A
종 교	불 교	103	26.5	3.29*	AB
	기 독 교	99	26.5		AB
	천 주 교	65	27.3		AB
	없다	191	25.1		B
	기 타	11	28.0		A
총 자녀수	1-2명	52	24.3	4.06*	B
	3-4명	156	25.8		A
	5명 이상	261	26.6		A

* P<.05 ** P<.01 *** P<.001

3. 연구문제 3의 검증: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속도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높은집단이 타 집단에 비하여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은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5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인자녀와의 접촉적결속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자녀와의 만남이나 편지, 전화 등의 접촉이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더 높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의 접촉이 직접적으로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Mancini와 Bieszener(19

89)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능적결속의 도움주기와 받기 모두 높은 집단일수록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일치적 결속은 일치적결속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애정적결속 역시 애정적결속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표 5〉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에 따른 노부모의 자아존중감

결속도	구분	빈도	평균	F 값	Duncan
접촉적결속	상	75	28.7	19.7***	A
	중	318	26.1		B
	하	76	23.4		C
도움 주기	상	71	27.0	12.6***	A
	중	326	26.5		A
	하	72	23.3		B
도움 받기	상	96	28.1	11.3***	A
	중	283	25.8		B
	하	90	24.6		B
일치적결속	상	91	28.6	17.4***	A
	중	284	25.8		B
	하	94	24.2		C
애정적결속	상	151	28.8	44.0***	A
	중	172	25.9		B
	하	146	23.4		C
전체결속도	상	75	30.3	54.3***	A
	중	323	26.1		B
	하	77	22.0		C

*** P<.001

하 : M-SD < 중 < M+SD : 상

4. 연구문제 4의 검증 :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잔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에 Dubin-Watson 계수가 1.68-1.73으로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하리라고 본다. 회귀분석의 각 변인이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6〉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애정적결속(0.32), 도움주기(0.14), 교육정도(0.10), 접촉적결속(0.09), 일치적결속(0.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0% 이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애정적결속은 26%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성인자녀와의 애정적결속이 높을수록, 도움주기가 많을수록, 노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성인자녀와 접촉적결속과 일치적결속이 높을수록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표 6〉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

변인	노부모의 자아존중감	
	B	β
애정적결속	0.29	0.32***
도움 주기	0.42	0.14***
교육 정도	0.11	0.10*
일치적결속	0.22	0.09*
접촉적결속	0.17	0.09*
건강	0.47	0.08
사회 활동	0.28	0.07
총 자녀수	0.18	0.07
종교	0.40	0.04***
배우자유무	0.22	0.02
도움 받기	0.06	0.02
용돈	-0.01	-0.02
R ²	0.30	
F값	16.3***	
D-W	1.73	

* P<.05 ** P<.01 *** P<.001

종교(없다: 0 있다: 1로 Record하여 Dummy화 하였음.)

건강, 사회활동은 변이들의 답항 번호를 그대로 점수화 하였음.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들이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및 배경변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차 원만한 부모-자녀관계의 형성, 유지 및 노부모의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는 65.5점으로

중양치인 60점보다 높았다.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65.1점, 여자노인은 평균 65.8점으로 여자노인이 성인자녀와의 결속을 약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결속도와 배경변인의 관계는 용돈, 건강, 사회활동, 종교는 P<.001 수준에서 그리고 노부모의 교육수준은 P<.05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사회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교육수준이 높을 때 노부모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2.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6.1점으로 중양치인 20점보다 높았다. 그리고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6.2점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26.0점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노부모의 건강, 사회활동, 용돈, 동거가족에서는 P<.001 수준에서 그리고 총자녀수, 교육수준, 종교는 P<.05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미혼자녀와 동거할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3.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에 따른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은 결속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았다. 그리고 결속의 모든 영역(접촉적결속, 도움주기, 도움받기, 일치적결속, 애정적결속)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모든 영역에서 결속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았다.

4.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애정적결속(0.32), 도움주기(0.14), 교육정도(0.10), 접촉적결속(0.09), 일치적결속(0.09)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0%이었다. 즉 성인자녀와의 애정적결속이 높을수록, 도움주기가 많을수록, 노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성인자녀와 접촉적결속과 일치적결속이 높을수록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는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용돈, 건강, 사회활동, 종교, 노부모의 교육수준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으로 나타난 바 노부모에게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과 건강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부모측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결속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 본 결과 성인자녀와의 결속이 높을수록 노부모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속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애정적결속이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대 간의 이해나 존중, 신뢰, 상호협조 등으로 나타나는 애정적결속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다.

세째, 각 변인들 중에서 노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이 결과, 배경변인으로는 건강이 그리고 결속변인으로는 애정적결속이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노인들의 건강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녀와의 접촉이나 도움주기 등의 객관적인 유대보다는 상호 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애정적결속 즉 주관적인 유대감이 노인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노인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현대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여 노년기 발달과업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더불어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세대들 역시 그들의 성인자녀와 원만한 유대를 맺으며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룩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기반으로 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K직할시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옥수.(1987).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중양의학*, 52(8), 517-524.
- 박경란.(1988).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장남 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최혜경.(1985).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1), 71-85.
- 변화순.(1993).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여성연구*, 11(2), 79-86.
- 송대현,박한기.(1992).한국노인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79-96.
- 신효식.(1993).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자아존중감,심리적 손상 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1994).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진.(1981).가족관계와 노인심리. *사회복지*, 겨울호.
- 장인협,최성재.(1987).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병은.(1990).부모자녀간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최정혜.(1992).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大和三重외.(1990).日本の高齢者の自尊感情とその要因分析. *老人社會科學*, 12, 147-167.
- Anderson,N.E.(1967).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on self-esteem. *J. of Gerontology*, 22(4), 313-317.
- Anderson,N.E., & Metter,D.(1968). Dishonest behavior as a function of differential levels of induced self-esteem.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121-127.
- Bengtson, V.L.(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Bengtson, V.L., & Cutler,N.E.(1976). *Generations*

-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In V.L. Bengtson and N.E. Cutler,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ew-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130-159.
- Bengtson, V.L., & Schrader, S.S. (1982). Parent-child relation. In D. Mangen, & W.A. Peterso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2 : Social roles and participation*.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lieszner, R., & Mancini, J.A. (1987). Enduring ties : Older adult parent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6(2), 176-180.
- Brody, E.M., Johnson, P.T., & Fulcomer, M.C. (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opinions and preference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 of Gerontology*, 39, 736-746.
- Chown, S.M. (1977). Morale, Careers and personal potential. *The Family Coordinator*, 25, 672-691.
- Connidis, I.A., & Davies, L. (1990). Confidants and companions in later life : The place of family and friend. *J.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 45 (4), 141-149.
- Festinger, L., Schachter, S., & Back, K. (1950).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New York : Harper.
- Pittman, J.F., Price-Bonham, S., McKenry, P.C. *Marital Cohesion : A path mode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21.
- George, L.K. (1989).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In K.S. Markides & C.L. Cooper (Eds.), *Aging, Stress and Health*. New York : John Willey & Sons.
- Krause, N. (1987). Chronic financial 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 185-192.
-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 349-356.
- Mancini, J.A., & Blieszner, R. (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 275-290.
- Mangen, D.J., Bengtson, V.L., & Landry, P.H. Jr (Eds.) (1988). *Measurement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McCulloch, B.J. (1990).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 The cas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J. of Gerontology*, 46(5), 251-258.
- Mead, G.H. (1970). Mind, self and society. In Anselm Straus (Eds.). *G.H. Mead : On Social Psycholog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uhaus, R.H., & Neuhaus, R.H. (1982). *Successful aging*. John Willey & Sons.
- Olson, D.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Inc.
- Schwartz, A.N., Snyder, C.L., & Peterson, J.A. (1984). *Aging and life : 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2n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The Dryden Press.
- Taft, L.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 (1), 77-84.
- Ward, R.A. (1977). The impact of subjective age and stigma on older persons. *J. of Gerontology*, 1, 184-197.